



한일경제협회 소식

Vol.13 신년호 · 2007년 1월

26th 세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향하여
1981~2007

135-821 서울 강남구 논현2동 112-15번지 4층 · (T) 02-3014-9888 · (F) 02-3014-9899 · <http://www.kje.or.kr> · <http://www.jke.or.jp>

2007년 『제39회 한일경제인회의』가 4월 ‘부산’에서....

- 일 자 : 2007년 4월 12일(목) ~ 4월 13일(금)
- 장 소 : 부산광역시 (부산롯데호텔)
- 규 모 : 한일 양국 경제계인사 300여명 [단장 : 조석래(趙錫來) 회장(효성 회장)]
- 일정 : 4월 11일(수) 주요기관예방 (일본측 단장단)
 4월 12일(목) 개회식 및 기조연설, 경과보고, 공동주최 리셉션
 4월 13일(금) 제1·2세션, 폐회식, 공동기자회견
 4월 14일(토) 옵션프로그램



매년 한일 양국의 경제계인사가 참석하여 양국의 경제협력방안 등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제39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오는 2007년 4월 12일(목)~4월 14일(토)까지 부산광역시(부산롯데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경색되어 있었던 한일관계가 한층 밝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번 한일 양국 재계인사의 회합은 양국이 더욱 성숙되고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굳건히 다져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부행사일정 안내 및 참가신청 접수는 2월에 실시할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12월 17일(화)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허남정(許南整) 전무이사 주재로 경제단체·기업·학계·연구기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회의의 테마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KJE**



++Contents++

- 02 신년사
허남정 한일경제협회 전무이사
- 03 주한일본대사 초청행사 개최
- 04 한일미래 공통과제와 지금의 한일양국에 대해 논의
~제8회 한일산업무역회의~
- 05 5천만달러 상당 실적 거두고 귀국
~제76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
- 05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양사무국간 협의 마쳐
~한일·일한경제협회 정례업무협의~

- 06 교도통신이 선정한 10대 뉴스 - 일본
- 07 교도통신이 선정한 10대 뉴스 - 국제
- 08 경제연대협정의 「확대」와 「심화」를 바란다
- 10 기업의 성공에 중요한 것은 「리더십을 가진 CEO」와 「경영전략」
- 11 마쓰시타(松下)에는 있는데 히타치(日立)에는 없는 것

회원동정 & 단신	13
일본의 주요지표	15
2006 주요사업실적	16

◆ 新 年 辭 ◆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희망찬 정해년(丁亥年) 새 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회원 여러분께 따뜻한 새해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세계 경제는 정보화와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모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의 급속한 부상과 지역주의의 확산은 세계 경제 속에서의 우리의 좌표를 재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를 돌아보면 그 동안 경색되었던 한일 정치관계는 작년 9월 일본에서 새로운 정권의 탄생과 아베 신임총리의 방한으로 성사된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류>와 함께 최근 원화강세로 일본을 찾는 한국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인적교류 역시 크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 협회는 다가오는 4월 12~13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39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한일FTA의 정부간 교섭이 재개되는 분위기를 만들고 한일청소년 교류, 일본 지역간교류, 그리고 한중일 협력체제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한 일본대사관, SJC클럽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주한 일본특파원 행사를 통한 한국경제 홍보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의 10년 불황탈출과 호황의 주역인 일본 제조업 현장을 둘러보고 그들이 혼을 불어넣어 제조하는 <모노즈꾸리 정신>을 우리 기업에 접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우선 일차적으로 국내 일간지와 공동으로 <제조업을 살리자>라는 신년특집을 기획 향후 20회에 걸쳐 지상에 소개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일재단은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을 위한 30여개의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작년에 새로이 발족한 <일본기업연구센터> 그리고 <일본 아웃소싱센터>의 기능을 조기에 정착시켜 국내기업의 니즈에 부응하고 나아가 정책현안인 대일무역역조의 개선에도 일익을 담당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우리의 카운터파트인 일한경제협회는 작년 5월 飯島(이이지마) 신임회장 체제가 새로이 출범하였으며 작년 12월부터는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의 상근책임자를 협회의 신임 전무이사가 겸임함으로서 대한 경제협력 창구기능을 단일화하였습니다. 이로서 양국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향후 더욱 효율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07년 정해년 새해에도 회원사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건승과 가내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7년 신년원단

한일경제협회·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 허 남 정

주한일본대사 초청행사 개최



우리협회 회장단은 지난 12월 5일(화) 신라호텔에서 주한일본대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측에서는 조석래(趙錫來) 회장(효성 회장), 김상하(金相廩) 명예회장(삼양사 회장), 김희용(金熙勇) 부회장(동양물산기업 회장), 라응찬(羅應燦) 부회장(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설원봉(薛元鳳) 부회장(대한제당 회장), 신동빈(辛東彬) 부회장(롯데그룹 부회장), 유상부(劉常夫) 부회장(POSCO 고문), 이길현(李吉鉉) 감사(경원 회장), 허남정(許南整) 전무이사 등 회장단 15명(부부동반)이 참석하였고,



일본측에서는 오오시마 쇼타로(大島 正太郎) 주한일본대사, 야마모토 에이지(山本 栄二) 경제공사, 미야지마 아키오(宮島 昭夫) 공사, 세오 마사즈구(瀬尾 正嗣) 참사관, 아고 신페이(吾郷 進平) 참사관, 馬場 誠治(바바 세이지) 참사관 등 6명(부부동반)이 참석하여 한일 양국간의 협력분위기 조성과 경제교류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교환을 나누었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4일(토) 한일 양국의 상호 이해와 친선증진을 위해 정기 모임을 송추CC에서 가졌습니다. 한국측에서는 조석래(趙錫來) 회장, 김상하(金相廩) 명예회장, 김희용(金熙勇) 부회장, 설원봉(薛元鳳) 부회장, 유상부(劉常夫) 부회장, 이길현(李吉鉉) 감사, 허남정(許南整) 전무이사 등 회장단 11명(부부동반)이 참석하였고, 일본측에서는 오오시마 쇼타로(大島 正太郎) 주한일본대사, 무토 마사토시(武藤 正敏) 주한일본공사, 미야지마 아키오(宮島 昭夫) 공사 등 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한일미래 공통과제와 지금의 한일양국에 대해 논의

~ 제8회 한일산업무역회의 ~

무역·기계·산업일반분야에서의 양국 경제인간의 인식의 공유와 합의를 지향하는 「제8회 한일산업무역회의」가 지난 11월 6일(월)~7일(화)까지 서울 COEX 컨퍼런스센터 310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측에서는 유창무 체어맨(한국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 36명, 일본 측에서는 아소 유타카(麻生 泰) 체어맨(아소라파쥬시멘트 사장) 등 31명이 참석해 『한일미래 공통의 과제 : 저출산시대의 도래와 기업경영』, 『지금의 한일관계 : 한국의 투자환경과 한일합작사례』, 그리고 『향후 한일산업무역회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라는 테마로 상호 정보교환 및 활발한 자유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의 한일양국의 공통의 과제 등에 대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상과 같은 테마가 의제로 채택된 것은 시의적절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설명과 양국 기업의 성공적인 합작사례발표를 통해 상호협력의 모범적인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제휴 및 합작시 문제점 등을 지적함으로서 향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하는 뜻 깊은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측 위원간에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협력방안 논의를 통해 양국의 투자와 경제교류 협력의 중요성과 사회 현상에 대한 미래의 기업 대응 전략과 대처 방안, 뉴비즈니스의 창출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기업입장에서의 대응 방안 사례로 발표한 일본 도시바의 시스템 구축 등 기업차원에서의 노력은 향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의 기업 경영 방향의 좋은 사례였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최근 북핵문제 등으로 대한투자유치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노사문제의 우려보다는 열정적인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임을 강조하고,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본 회의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지금까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향후 본회의의 개선방안에 대한 합의를 통해 내실 있는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회의가 되도록 상호 협력키로 하고 폐막되었습니다. **KJE**

5천만달러 상담 실적 거두고 귀국

~ 제76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 “SEMICON Japan 2006” ~



1985년부터 일본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와 공동 협력사업으로 시작하여 일본시장 개척활동을 전개하면서 신규바이어 발굴을 통한 일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국방일수출촉진단이, 금번 76차 미션을 10개사 15명으로 구성하여 12월 6일(수)~9일(토)까지 일본 치바 마쿠하리メッセ에 파견되었습니다.

금번 미션은 일본에서 개최



되는 국제견본시 『SEMICON Japan 2006』 개최기간에 맞춰 일본 JETRO와 당협회가 주관하여 실시하였는데 동 견본시와 연계하여 전시장내 별도 부스에서 내방객 및 사전 어렌지를 통한 바이어와

1:1 상담회를 갖는 Fair in Fair 형태의 상담회로, 상담기간 동안 65건의 비즈니스상담을 통해 5,151만달러 규모의 상담실적을 거두고 귀국하였습니다.



한편 본 미션 파견에 앞서 참가단원을 대상으로 대일 시장진출 방안에 관한 세미나 및 사전결단식을 지난 11월 24일(금) 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허남정(許南整) 전무이사의 인사에 이어 코다까 가즈오(小高一男) JETRO서울센터 해외투자고문으로부터 「일본의 비즈니스 매너(성공적인 비즈니스상담을 위해)」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습니다. ☐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양사무국간 협의 마쳐

~ 한일·일한경제협회 정례업무협의 ~



양 경제협회의 2006년도 정례업무협의가 12. 13(수) 협회 회의실에서 한국측에서는 허남정 전무이사 등 5명이, 일본측에서는 武澤 泰(타케자와 타이) 전무이사 등 5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양 협회 금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가 있었고, 특히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39회 한일경제인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습니다. ☐

◎ 共同(교도)통신이 선정한 10대 뉴스 - 일본 ◎

(1) 아베 정권 발족

첫 전후세대 총리인 52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아베 내각이 9월 26일 발족했다.

(2) 호리에몬, 무라카미 대표 등 힐즈 족의 구속

IT(정보기술)로 급성장한 라이브도어 그룹의 호리에 타카후미와 무라카미 펀드의 무라카미 요시아키가 분식결산과 주식의 인사이더 거래 등으로 구속되었다. 「록폰기 힐즈 족」의 추락으로 화제.

(3) 일본 왕실, 41년 만에 득남 <秋篠 宮(아카시노 노미야)家>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둘째 며느리가 9월 6일 장남을 출산, 왕실에서 41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다. 왕위계승 순위는 인 나루히토(德仁) 왕세자와 부친인 후미히토(文仁) 왕자에 이어 제3위.

(4) 지방자치단체의 관제 담합으로 현 지사 체포 잇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제 담합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여 10~12월, 후쿠시마현, 와카야마현, 미야자키현의 현지사가 각각 체포되고, 기후현에서는 前지사 시절의 거액 비자금이 발각되었다.

(5) 집단 괴롭힘 자살, 필수과목 未이수 등으로 교육 현장 혼란

집단 괴롭힘이 원인으로 보이는 자살이 잇따르면서, 교사의 부적절한 언동과 교육위원회와 학교 측의 안이한 대처가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전국의 공·사립 고등학교에서 세계사 등 필수 과목의 未이수가 발각되면서 아베 내각에서는 교육기본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6) 맨션 내진 위장으로 아네하 건축사 등 체포

맨션 등의 내진 강도 위장 사건으로 前 일금 건축사 아네하 히데지와 개발회사 사장 체포. 국토교통성은 이와 관련해 위반자의 징역형 등 별칙 강화를 포함한 재발 방지책을 취했다.

(7) 개정 교육기본법이 가결, 방위청의 「성」승격법도 통과

애국심을 강조한 일본 개정교육기본법이 12월 15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시민 사회와 일부 야당에서 강한 반발. 「방위성」관련법도 통과되어 자위대 해외 파견이 「본연의 임무」가 되었다.

(8) 일본은행 제로금리 정책 철회, 경기는 「이자나기 경기」추월

일본은행은 7월 14일, 5년 4개월 간 지속해온 「제로금리」정책을 철회하기로 결정. 2002년 2월부터 시작된 경기확대 국면이 58개월 동안 지속되자 「이자나기 경기(Izanagi Boom)-1965. 11월~1970년 7월(4년 9개월)」를 추월한 전후 최장 기록을 갱신했다고 선언했다.

(9) 토리노 동계 올림픽에서 아라카와 시즈카 금메달 획득

토리노 동계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부문에서 아라카와 시즈카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여 일본의 이번 대회 유일한 금메달을 선사했다.

(10) 음주 운전 확대로 처벌 강화 움직임

공무원의 음주 운전에 의한 사상사고가 잇따르자, 함께 마시거나 통승한 직원의 면직까지도 포함한 처벌 강화 움직임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퍼졌다.



◎ 共同(교도)통신이 선정한 10대 뉴스 - 국제 ◎

(1) 북한 지하핵실험 실시, UN이 제재에 나서

7월의 미사일 연속 발사에 이어 북한은 10월 9일에 첫 지하핵실험을 실시. UN안전보장이사회는 선박화물검사 등의 북한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 일본은 독자 제재도 발동하였다. 북한의 핵무기를 방폐시키기 위해, 2005년 11월 이후 중단되었던 6자 회담도 12월 18일에 재개했다.

(2)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패배, 국방장관 경질

이라크전쟁을 쟁점으로 한 11월의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상하 양원에서 민주당에 패배, 주지사 선거에서도 참패. 선거 후, 부시 대통령은 런스펠드 국방장관을 해임했다.

(3) 이라크 내전 상태, 후세인 전 대통령의 사형 집행

이라크는 2006년 5월 마리키 수상의 정통 정부가 발족했으나 종파 대립항쟁 격화로 미언론은 「내전」으로 규정. 이라크 고등법정은 후세인 전 대통령에 11월 사형 선고, 12월 30일 집행했다.

(4) 원유가격 상승, 배럴 당 78달러 돌파

2006년 7월 13일, 뉴욕의 원유 선물시세는 충동 정세 불안으로 급등, 시간외 거래로 배럴당 78달러를 돌파, 최고치를 갱신했다.

(5) 인도네시아에서 대지진

5월 27일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섬에서 리히터 규모 6.3의 지진이 일어나 6000여명 사망. 7월 17일에는 자바섬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7.7의 지진이 일어나 해일로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

(6) 이스라엘, 레바논 침공

이스라엘군은 7월 12일, 레바논의 이슬람교 시아파 민병 조직 헤즈볼라에 납치된 병사 2명을 구출하기 위해 레바논 남부를 침공했다.

(7) 이란 핵개발 계속하며 미국·유럽과 대립구도

2006년 4월,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은 저농축우라늄 제조에 성공했다고 발표. UN 안보리에서 제재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8) 월드컵, 이탈리아 우승

독일 월드컵에서 이탈리아가 프랑스를 물리치고 6회 만에 4번째 우승을 차지. 결승전에서 프랑스 주장 지단이 이탈리아 선수에게 박치기를 해 퇴장당한 사건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9) 명왕성, 행성에서 퇴출

국제천문연맹(IAU)은 8월에 프라하에서 열린 총회에서 명왕성을 행성에서 격하해, 종전의 9개였던 태양계 행성은 8개가 되었다.

(10) 태국에서 쿠데타, 총리 망명

9월, 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군부와 경찰로 구성된 「민주개혁평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였고, UN총회 참석 차 외유 중이었던 탁신 총리는 런던에서 사실상 망명 생활에 들어갔다.



■ 日本은 지금...

경제연대협정(EPA)의 『확대』와 『심화』를 바란다

日本経団連經濟連携推進委員会
 共同委員長
 全日本空輸会長
大橋洋治
 오오하시 요오지

委員長
 住友化学社長
米倉弘昌
 ヨネクラ ヒロマサ



경제연대협정(EPA)을 둘러싼 현황

일본 경단련에서는 2004년 3월에 「경제연대의 강화를 위한 긴급제언」을 내놓은 이후 정부, 여당 등 관계기관에 경제연대협정(EPA)의 전략적 추진을 촉구해 왔다. 또한 별표와 같이 양국간·다국간의 EPA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제언하는 등의 대응을 해왔다.

【EPA에 관한 일본 경단련의 최근 주요 제언】

2005년 9월	『일본과 GCC(걸프협력협의회) 경제연대 협정의 조기교섭개시를 촉구한다.』
12월	『일본과 ASEAN의 포괄적 경제연대협정의 조기체결을 촉구한다.』
2006년 6월	『일본·인도네시아 경제연대협정(EPA)의 조기체결을 기대한다.』
7월	『일본·인도 경제연대협정의 조기실현을 촉구한다.』
9월	『일본·호주 경제연대협정의 조기교섭개시를 촉구한다.』
12월	『일본·미국 경제연대협정을 위한 공동연구개발을 촉구한다.』

이러한 가운데, 싱가풀에 이어서 2005년 4월에 멕시코, 2006년 7월에는 말레이시아와 EPA를 발효하고, 9월에는 필리핀과 EPA를 체결하는 등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한편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EPA ·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응을 일본 이상으로 가속화하고 있어 「EPA · FTA 경쟁」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線에서 面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포괄적이며 자유화도가 높은 EPA를 목표로 내용을 심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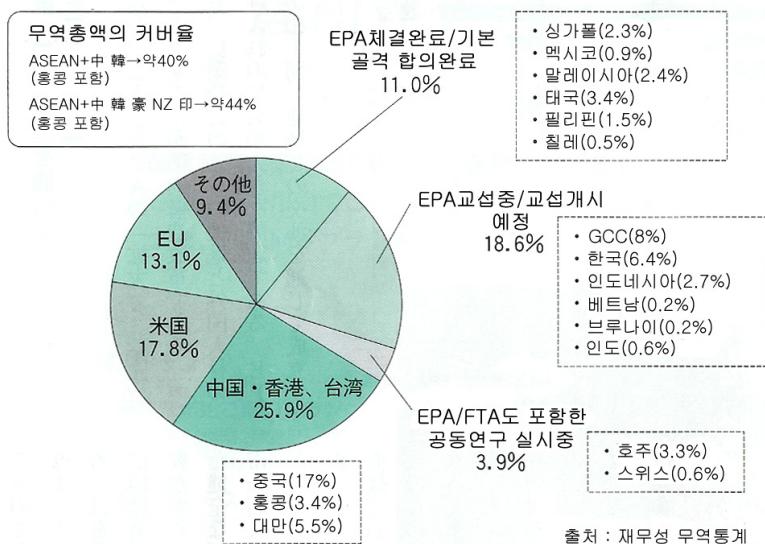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연대추진위원회에서는 2006년 5월 말에 설립된 이래, 무역투자위원회 등과 연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등의 활동을 추진해 왔다. 또한 아시아·대양주지역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위원회와의 협력 하에 EPA의 추진에 대한 앙케이트를 실시하는 등 열정적으로 검토를 진행하여 지난 10월 17일, 제언 「경제연대협정의 『확대』와 『심화』를 바란다」를 내놓았다.

EPA의 『확대』와 『심화』의 전략적 추진

세계화와 소자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일본경제가 활력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도하에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사업체제의 구축 추진이 불가결하며, EPA는 그를 위한 중요한 경제인프라이다. 한편, EPA를 통해서 일본은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아시아와 함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확립하여 물심양면으로 풍요로움을 함께 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원·에너지, 식료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공급국가와의 관계를 긴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PA를 체결함으로써 원활한 거래관계를 중장기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림 1> 일본의 무역 총액에 차지하는 국가 지역별 비율 (2005년)



일본으로서는 이상과 같은 EPA의 전략적인 의의를 염두에 두고, 지리적·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성장이 두드러진 동아시아에 중점을 두면서 다국간 및 양국간 EPA를 병행하는 한편, 신속하게 추진하여 경제연대의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그것을 베이스로 한 지역경제통합의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해야만 한다.

EPA를 面의으로 『확대』해 나감에 있어서 <그림 2>의 관계위원회 참가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양케이트 결과(회답률 51%)에 의하면 당면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국간에서는 아시아 EPA의 허브가 되고 있는 ASEAN과의 교섭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양국간의 EPA로는 중요한 이웃국가인 중국, 한국, 신흥경제국 인도, ASEAN가맹국으로 아직 EPA를 체결하지 않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자원·에너지 등의 공급원인 호주, 페르시아만 각국 등과의 교섭 개시, 가속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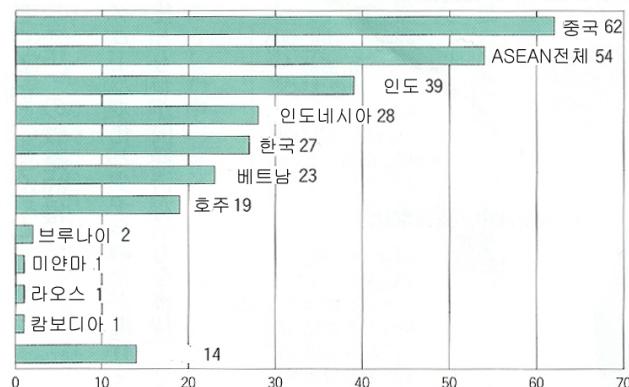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일본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지역에 관해서는 EPA 등 경제연대를 강화하는 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EPA의 내용으로서는 물품·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더욱 내용을 『심화』시켜 투자의 자유화, 지식재산권의 실효적인 보호, 인적 이동 등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여러 룰을 포함하여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EPA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국내 구조개혁을 통한 EPA의 추진

이상과 같은 EPA의 『확대』와 『심화』를 뒷받침하는 것이 일본국내구조개혁이다. 그 중에서도, 농업분야의 개혁 촉진과 외국인재의 수용 확대가 큰 과제이다. 상대국·지역과의 교섭을 통하여 EPA를 성립시키는 것인 만큼, 꼭 지켜야 할 것은 지켜내더라도 일본이 양보해야 할 것은 양보해서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일본국내의 구조개혁을 추진, 일본 경제사회의 기반강화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림 2> 특히 우선적으로 EPA를 체결해야 하는 국가 지역 (양케이트결과 의거)



* 숫자는 '동아시아 각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 특히 우선적으로 EPA를 체결해야 하는 국가 지역'이라는 설문에 대한 회답수(복수회답 있음)

농업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가진 건전한 일본국내 농업의 구축과 EPA를 통한 시장개방을 양립시켜야 하고, 의욕 넘치고 능력 있는 중핵적 담당자에 대한 정책 집중이나 국내외의 생산조건격차를 시정하는 직접 지불 등의 도입·추진 등의 일본내 시장개방을 위한 기반정비의 착실한 실행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재의 수용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의 요청 등에 입각해 체류자격으로서의 「전문적·기술적 분야」 범위 확대나 연수·기능실습제도를 재점검하는 등 상대국의 요망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대외교섭 및 일본 내 조정권한의 일원화

이러한 구조개혁의 추진을 포함하여 EPA의 확대와 심화를 신속하게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본 내의 추진체제 정비가 불가결하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상당하는 기능을 대외경제전략 면에서 담당하는 「대외경제전략자문회의」를 설치하는 등 EPA교섭의 추진에 있어서 민간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구조를 확립해야만 한다.

더불어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고, EPA-WTO교섭 등, 대외경제전략을 담당하는 특명대신을 본부장대리로 하는 「대외경제전략추진본부」를 내각에 창설하는 것 등을 통하여 官邸主導로 대외교섭은 물론 국내조정권한에 대해서도 일원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경을 전제로 하지 않고 「서로 국가를 개방하는」 EPA를 신속하게 확대하여, 내용을 심화시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EPA의 『확대』와 『심화』의 실현을 위하여, 정부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책정하여 진척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확대와 심화의 호순환이 형성되어진다. 경제계에서도 동아시아 등의 상대국·지역의 산업계에 대해 가능한 한 경제·기술협력 등을 실시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일본과 동아시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욱 풍요로운 생활로 이어지는 EPA의 중요성에 대하여 국민적인 이해를 얻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JE

<자료출처 : 경제Trend 2006. 12>

기업의 성공에 중요한 것은 『리더십을 가진 CEO』와 『경영전략』

2006년 12월 13일, 미 PRTM Management Consultants는 「세계의 경영 간부(CEO나 COO 등 의 Chief Officer)의 약 25%가 기업에 있어서 획기적인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경영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등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북미, 유럽,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영 간부 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한 경영전략이나 기업이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경영 경제 등에 대해서 물었다.

경영전략의 중요한 구동력은 「CEO(최고 경영 책임자)」라는 응답자가 78%를 차지했다. 경영전략의 실행에 중요한 요소로서 「재능, 사풍, 리더십」을 든 응답자는 97%에 이르렀다. 또, 획기적인 경영전략을 효율적으로 책정, 실행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은 「전통적인 가치관」이라는 응답자가 62%였다.

「고객의 엄격한 요구, 비즈니스의 글로벌화, 시장의 급변이나 혁신에 대한 요구 등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의 경영 간부는, 경영전략에 의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PRTM 대서양 지역 담당 이사 Gordon Stewart).

경영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기업으로는 Apple, Dell, Ford Motor, General Electric, Google, Hewlett-Packard, Home Depot, Intel, IBM, Microsoft, 3M, 토요타 자동차, Virgin Atlantic, Wal-Mart등이 거론되었다. JE

<자료출처 : 日經BP 2006. 12>

◎ 기술경영전략고찰 ◎

마츠시타(松下)에는 있는데 히타치(日立)에는 없는 것

古田 健二 Fusion&Innovation 대표이사

기술 경영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테마는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일찍이 「우선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즉 발상의 원점에 기술을 둔 후에, 어떻게 기술을 활용하여 상품을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사업에는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고 생각을 전개해 나간다. 바꾸어 말하면, 개별의 시점을 출발점으로 하는 「귀납적 발상(歸納的 發想)」이라는 것이다.

한편, 정반대인 「연역적 발상(演繹的 發想)」이라고 하는 발상법이 있다. 즉 출발점에는 기술이 아닌 기업 혹은 사업 전략을 둔다. 그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이 필요할 것인지, 그리고 그 필요한 기술을 어떻게 자사의 것으로 할 것인지 발상해 나가는 것이다.

이 「발상의 차이」를 시점의 차이로서 표현하면 전자는 「자사가 보유한 기술의 시점에서 시장을 주시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시장의 입장에서 자사의 기술 혹은 연구 개발을 관찰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반대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귀납적」과 「연역적」이라고 하는 발상의 차이야말로 현재의 일본 기업에게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자는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전이 필요」하다든가 「전략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자주 듣게 된다. 이것은 많은 기업들이 경영의 베이스를 「귀납적 발상」에서 「연역적 발상」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는 것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비전이나 전략은 연역적인 발상을 할 경우에 필요한 것이며, 여전히 종래의 귀납적 발상을 베이스로 경영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에게는 본래 「무용지물」인 것이다.

단지 정말로 이 발상의 전환이 되고 있는지 어떤지는 의심스럽다.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말은 질리도록 들었지만 얼마만큼의 기업에서 실행

되었을까. 「선택과 집중」은 연역적인 경영 스타일을 취하고 있으면 실천할 수 있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귀납적 발상으로 경영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할 수 없는 것이다.

사업이든지, 연구 개발 테마이든지, 「선택과 집중」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 외의 다른 것은 버린다는 판단이 필요하게 된다. 그 판단에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이 「장기 기업 비전」이나 「경영전략」, 「사업 전략」인 것이다. 그것조차 없다고 하는 기업은 적을 것이다. 하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면 역시 귀납적인 발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전략을 내걸면서도 여전히 실행 부문인 사업부나 연구 개발 담당자의 시점을 중시해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필자가 알고 있는 어느 기업에서도 장기 비전을 책정했다. 그 비전은 아주 명쾌하게 장래의 사업, 상품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었지만 그 회사에는 비전에 맞지 않는 사업이 존재하고 있다. 비전의 실현을 경영의 기본으로 한다면 그 사업은 정리의 대상이 될 것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에 대응하는 연구 개발 활동이 실시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일단 현시점에 있어서는 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철퇴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본심이다. 이런 식이라면 비전은 필요치 않다. 앞서 말한 「무용지물」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 기업은, 현재 실적도 좋고, 주가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한 인재가 심혈을 기울이고 바쁜 시간을 할애해 책정한 비전은, 실제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경영자가 종래와 같이 모두가 노력하면 좋다고 하는 경영, 귀납적 발상에 의한 경영을 계속한다면 처음부터 비전 같은 것은 만들지 않는 편이 낫다. 시간과 노력의 낭비다.

반복해 말하자면, 귀납적 발상의 회사는 자사의 기술을 활용한다는 생각이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연역적 발상의 회사는 사업이나 연구 개발 테마를 발안하는 단계에서는 비전 등을 기점으로 하지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기술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 연역적 발상법의 하나로서, 「유저 베이스의 발상」이라는 것이 있다. 성공 확률이 높고, 신규 사업 전략의 사고방식으로서는 매우 유용하다고 저자는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많은 가전 메이커는 지금까지 가정이라고 하는 유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차례차례로 개발하여 많은 제품을 제공해 왔다. 이것은 유저 베이스의 발상을 사용한 좋은 예이다. 이것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세탁기 등의 모터 기술, 텔레비전 등의 신호 처리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냉열 기술, 온도 제어 기술 등이 있었던 덕분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소비자 요구에 기초하여 새롭게 구축하며 간 것이며, 자사에서 때마침 보유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

그 밖에도 예를 들어 보자. 자사의 발전적인 모습을 상정한 다음 전체 최적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자원 투입의 포인트를 고려하는 「포트폴리오적 발상」도 전형적인 연역적 발상이다. 게다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생각도 그려할 것이다. 우선 프로젝트 완료 시점을 상정하고 그를 향한 필요기능별 스케줄을 상정해, 자원 투입량을 조정하고 필요한 기술 등의 자원을 검토하여 그 조달 방법을 생각한다. 이러한 흐름은 연역적 발상 그 자체이다.



이러한 연역적 발상이 중요하게 되는 것은, 일 반론으로서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경영에 있어서는 事業部制나 컨퍼니제 등 개별 사업의 집합체로서의 경영이 횡행하고 있어, 많은 일본 기업에서 「전체 최적에서의 경영」이 경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낫케이 비즈니스에 발표된 2006년도의 히트 상품 TOP 50이라는 랭킹을 보았다. 마쓰시타(松下)전기산업, 샤프 등 부문 간의 벽을 넘어 정보, 기술 등의 공유화를 도모한 것이 히트 상품 창출의 포인트였다는 코멘트가 있었다. 전자 업계 실적의 추이를 보더라도 전체 최적이라는 시점에서 사업의 전략적 전개를 추진하고 있는 미츠비시 전기나 토시바는 호조이지만, 종전의 개별사업 수익개선의 연장에서 경영의 재건을 생각하고 있는 히타치 제작소는 고전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전체 최적을 의식한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업계를 불문하고,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일상 활동에도 이 연역적 발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를 바라고 있다.

● 필자 소개 ●

古田 健二(Fusion&Innovation 대표이사)

종합전기 메이커의 개발 기술자를 거쳐 경영 컨설턴트가 되었다. 일관되게 「경영과 기술의 융합」을 활동 테마로 삼고 있다. 개별 기업의 컨설팅 활동뿐만 아니라 기술 경영 연구 센터, 사회경제 생산성 본부, 칸사이 생산성 본부, 기업 연구회 등에서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 및 신규 사업 매니지먼트의 강사·코디네이터를 담당. 저서로는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의 사고방식·진행방식」「신규 사업 파워업 노트」, 근간으로는 「제5세대의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가 있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기술 경영에 초점을 맞춘 정기간행물인 「월간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도 발행하고 있다.

본고는, 필자가 속한 Fusion&Innovation에서 발행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정기 간행잡지의 연재에 근거하여 작성. JE

■ 회원 동정 & 단신

■ 조석래(趙錫來) 회장(효성 회장)

은 11월 23일 한일재계회의에서 독도문제와 교과서 왜곡, 신사참배 등을 거론하며 한일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려면 일본이 신뢰를 받는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한일재계회의 개막사에서 “최근 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중단된 것은 FTA내용에 대해서만 이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 역사 문제에서 비롯되는 인식의 차이가 커기 때문에 협상을 계속할 분위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한일이 FTA를 체결하고 이후 동아시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이 한국을 비롯한 이웃나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호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효성은 11월 3일로 창업자인 조홍제 전 회장이 66년 옛 동양나일론을 설립한 지 꼭 40년이 되었다.



■ 김상하(金相廬) 명예

회장(삼양사 회장)은 12월 5일 웨스턴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국 여자농구 100년사! 96년만의 뎁크슛 출판기



념회’(한국여자농구연맹(WKBL))에서 축사를 하였다. 김상하 전 대한농구협회장은 “역사적인 100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초대돼 기쁘다”며 “최근에 침체된 여자농구가 더욱 더 발전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 박삼구(朴三求) 부회장(금호아시

아나그룹 회장, 한중우호협회 회장)은 지난 12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을 만나 한국과 중국의 우호 증진과 교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부회장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황화(黃華) 중국 국제우호연락회 회장(전 부총리), 뤄하오차이(羅豪才) 정협 부주석(중한우호협회 회장)과도 만나 환담했으며 12월 19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포럼에 참석하였다. 한편 12월 22일 박 부회장은 대우건설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 김희용(金熙勇) 부회장(동양물산

기업 회장)은 전경련이 11월 8일 개최한 「2006 황사·사막화 방지를 위한 한·중 공동 세미나」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황사·사막화 방지 활동은 황사 방지는 물론 해당지역 수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 중국 청도를 연결하는 송유관 설치(12,000km) 계획과 연계하여 주변지역의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드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국가차원에서 중국정부를 비롯한 관련 프로젝트 참여 국가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김승연(金昇淵) 부회장(한화 회

장)은 3남 동선(한화갤러리승마단)씨의 국제무대 데뷔전인 도하 아시아경기대회를 지켜보기 위해 승마장을 찾았다. 김 부회장은 지난 10월 대한올림픽위원회(KOC) 고문으로도 위촉되었다. 한편 한화그룹은 1월 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김 부회장과 그룹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 CI(기업이미지) 선포식을 갖고 '뉴(New) 한화'의 새로운 100년을 다짐했다.



■ 손경식(孫京植) 고문·부회

장(대한상의·CJ 회장)은 12월 24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기업사랑협의회 전국 네트워크 총회’에서 축사를 하였다. 이번 총회는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자부와 지자체가 함께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박봉규 대구정무부시장, 이인종 대구상의 회장과 광역자치단체, 기업지원기관 등이 참석 ‘기업사랑 실천 선언문’을 채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했다.



한편 손 고문은 12월 19일 빅토르 유센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청하여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28일에는 대한상의를 방문한 압둘라 알-아이판 주한사우디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 **유상부(劉常夫)** 부회장(포스코 고문, 포항공대 이사장)은 12월 1일 포항공대 개교 2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 치사를 통해 “2020년까지 세계 20위권 연구중심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행사에는 제1호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미국 록펠러대학의 로데릭 메키넌(2003년 노벨화학상 수상) 박사를 비롯한 200여 명의 국내외 초청인사와 **박태준(朴泰俊)** 명예회장(포항공대 설립이사장), 박찬모 총장장을 비롯한 대학 및 재단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무역협회 무역진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민석(徐敏錫)** 부회장(동일방직 회장)은 12월 18일 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역진흥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외환관리를 해야 한다는 기조에서 생산적인



해외투자는 좀 더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종합적인 환율 대책을 촉구하고 해외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안들을 요구했다.

■ **조양호(趙亮鎬)** 부회장(대한항공 회장)의 ‘달력 마케팅’이 올해도 계속됐다. 최근 자신이 찍은 사진으로 만든 새해 달력 1,000부를 제작해 “내 사진을 보고 ‘잊고 지냈던 고향에 가고 싶소’, ‘그 곳은 내가 그리던 곳이요’라는 연락이 올 때 더 많은 곳을 담아야겠다는 다짐을 한다.”는 인사말을 담아 국내외 지인들에게 선물했다. 사진 애호가인 조 부회장은 2001년부터 올해까지 6년째 ‘조양호표’ 달력을 만들어 왔다.



■ **이길현(李吉鉉)** 감사(경원 회장)는 11월 30일 <연대 경제대학원 최고 경제인과정 29기>에서 강연을 하였고, ‘延經會’ 회장에 취임하였다.



한편 한 일재단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감사는 지난 11월 15일 2006년도 재단 전문위원회를 진행하였다.



■ 한일경제협회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2006년을 마무리하는 종무식을 12월 29일 가졌으며, 지난 1월 2일에 시무식을 갖고 2007년 정해년을 활기차게 시작하였다.

■ 2006년 한해 많은 협력과 관심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사무국은 앞으로도 한일 양국의 민간경제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통전화·이메일>

허남정 전무이사	njhuh@kjc.or.kr
유봉우 이사	02-3014-9833 bwryu@kjc.or.kr
조덕묘 부장	02-3014-9855 dmcho@kjc.or.kr
김정호 차장	02-3014-9866 jhkim@kjc.or.kr
심규진 과장	02-3014-9877 kjhim@kjc.or.kr
홍소영 사원	02-3014-9888 syhong@kjc.or.kr

☞ 일본의 주요지표 ☜

항목	명목GDP 성장률	실질GDP 성장률	경기동향지수			기업도산건수	국내기업물가지수 (국내총평균)	
			전기대비연율	전기대비연율	先行DI	一致DI		
단위	%	%			%	%	2000년 =100	전년대비
2003년	-0.2	1.4	2003년	—	—	16,255	94.9	-0.8
2004년	1.6	2.7	2004년	—	—	13,679	96.1	1.3
2005년	0.6	1.9	2005년	—	—	12,998	97.7	1.7
02년 10~12월	-0.6	0.5	2005년 8월	100.0	77.3	1,152	98.2	1.8
03년 1~3월	-3.6	-1.3	9월	41.7	63.6	987	98.4	1.8
4~6월	3.2	2.8	10월	66.7	81.8	1,171	98.7	2.1
7~9월	0.3	1.9	11월	50.0	63.6	1,114	98.7	2.0
10~12월	3.2	6.3	12월	66.7	90.9	1,149	98.9	2.3
04년 1~3월	4.2	5.1	2006년 1월	79.2	77.3	1,049	99.0	2.7
4~6월	-1.5	-1.2	2월	83.3	45.5	1,044	99.4	3.0
7~9월	0.1	1.0	3월	50.0	9.1	1,255	99.4	2.7
10~12월	0.4	-0.5	4월	50.0	81.8	1,087	100.0	2.6
05년 1~3월	0.6	3.4	5월	79.2	81.8	1,083	100.6	3.3
4~6월	1.6	3.2	6월	58.3	90.9	1,111	100.6	3.4
7~9월	0.5	2.8	7월	33.3	77.3	1,051	101.3	3.4
10~12월	1.8	2.1	8월	25.0	81.8	1,169	101.6	3.5
06년 1~3월	1.8	2.7	9월	25.0	50.0	1,030	101.9	3.6
4~6월	p 0.0	p 1.1	10월	pr 54.5	pr 75.0	1,166	101.5	2.8
7~9월	p 0.0	p 0.8	11월	1,091	p 101.4	2.7

항목	소비자물가지수 (전국·생선식품·제외 종합)	광공업생산지수			기계수주(선 박·전력·제외 民需)	신설주택착공	소비자출 (전세대)	대형소매점 판매액	승용차판매대 수(보통·소형 경차)
		2005년 =100	전년대비	季調 2000년 =100	전년대비	季調·전년대비	未季調	전년대비	점포조정필 전년대비
2003년	100.2	-0.3	95.0	3.3	10.7	1,160,083	-1.3	-3.2	4,715,920
2004년	100.1	-0.1	100.2	5.5	4.4	1,189,049	1.4	-3.5	4,768,131
2005년	100.0	-0.1	101.3	1.1	7.1	1,236,175	-0.8	-2.3	4,748,409
2005년 8월	100.0	-0.1	100.9	1.0	6.0	109,199	0.4	-2.9	290,795
9월	100.2	-0.1	101.1	0.2	-6.7	108,086	1.1	-2.8	457,952
10월	100.3	0.0	101.6	0.5	2.9	115,822	1.1	-3.4	344,597
11월	100.0	0.1	103.6	2.0	1.9	110,986	-1.5	-0.8	365,572
12월	100.0	0.1	104.9	1.3	4.1	97,932	0.1	0.6	325,744
2006년 1월	99.7	-0.1	104.8	-0.1	-2.8	92,899	-2.5	-2.8	325,364
2월	99.5	0.0	103.5	-1.2	1.5	96,995	-1.1	-1.9	443,493
3월	99.9	0.1	103.7	0.2	-5.2	94,318	-1.9	-0.3	688,234
4월	100.0	-0.1	105.1	1.4	10.8	111,260	-1.6	-0.9	312,842
5월	100.2	0.0	103.7	-1.3	-2.1	108,652	-1.2	-1.6	322,707
6월	100.2	0.2	105.9	2.1	8.5	114,331	-1.1	-1.2	405,768
7월	100.1	0.2	104.9	-0.9	-16.7	106,649	-0.8	-1.4	396,266
8월	100.3	0.3	106.8	1.8	6.7	111,187	-3.3	0.1	283,446
9월	100.4	0.2	106.1	-0.7	-7.4	112,442	-5.2	0.8	438,104
10월	100.4	0.1	107.8	1.6	2.8	118,360	-1.8	-1.7	332,350
11월	362,253

항목	소정외노동시간 (전산업)	완전실업률	유효구인률	경상수지 (IMF방식)	무역수지 수지	자본수지	무역액(주간베이스)	
							수출	수입
단위	季調	季調						
	시간	%	배	억엔	억엔	억엔	억엔	억엔
2003년	10.0	5.3	0.64	157,668	83,553	77,341	545,484	443,620
2004년	10.3	4.7	0.83	186,184	101,961	17,370	611,700	492,166
2005년	10.4	4.4	0.95	p 182,591	p 76,930	p -140,068	656,565	569,494
2005년 8월	10.0	4.3	0.97	12,086	356	-4,947	52,200	51,174
9월	10.2	4.3	0.97	18,507	8,541	-10,406	59,271	49,785
10월	10.5	4.5	0.98	14,399	6,556	-8,067	59,106	50,927
11월	10.7	4.5	0.99	14,451	5,698	-9,886	59,136	53,192
12월	11.1	4.4	1.03	18,696	8,965	-17,789	63,371	54,288
2006년 1월	10.3	4.5	1.03	7,974	-2,976	-15,257	50,083	53,619
2월	10.5	4.1	1.04	23,051	10,116	-15,106	58,495	49,027
3월	10.9	4.1	1.01	24,223	11,250	-15,058	68,155	58,477
4월	11.1	4.1	1.04	13,219	3,003	-2,759	61,289	54,791
5월	10.3	4.0	1.07	16,273	4,133	-17,652	57,037	53,227
6월	10.5	4.2	1.08	10,245	6,581	-1,941	62,709	54,655
7월	10.6	4.1	1.09	p 18,096	p 6,767	p -12,504	63,212	54,630
8월	10.3	4.1	1.08	p 14,769	p 1,769	p -7,003	61,413	59,464
9월	10.5	4.2	1.08	p 20,249	p 8,904	p -16,764	68,318	58,225
10월	r 10.8	4.1	1.06	p 15,146	p 4,199	p -8,037	65,927	p 59,821
11월

(출처) 내각부, 일본은행, 동경상공이서치, 총무성통계국,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일본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 후생노동성, 재무성 (주) p는 속보, r은 정정. GDP성장률은 실질치의 산정을 연쇄방식에 의해 변경. 소비자출은 전세대(농림어가세대를 포함)의 수치. 소정외노동시간은 사업소규모 5인 이상

☞ 2006년도 한일경제협력 주요사업실적 ☝

월	일자	행사내용	지역
1	17(화)	제38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사전회의 개최	한국 서울
2	8(월)~10(수)	제8회 한·일(큐슈)산업기술교류미션 유치	한국 서울
	9(화)	회장단회의(이사회) 개최	한국 서울
	9(화)~13(월)	제6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파견	일본 도쿄
4	17(금)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와의 업무협의 개최	한국 서울
	17(금)	지식산업기술연수 평가회 개최	한국 서울
	20(월)	제25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 서울
	22(수)	한일재계인사 간담회 개최	일본 도쿄
5	10(월)	주한일본대사 주최 간담회 개최	한국 서울
	17(월)~29(토)	경영관리연수 파견(20명)	일본 도쿄
6	25(목)~27(토)	제38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개최	일본 삿포로
	5월~9월	생산성단기컨설팅(고문매칭) 실시(10사)	한국
7	21(수)~23(금)	제6회 한일부품소재상호보완상담회 파견(20사)	일본 도쿄
	25(일)~7/8(토)	품질관리연수 파견(30명)	일본 오이시
8	11(화)~14(금)	제13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최	일본 사가
	15(일)	주한일본대사 초청 골프행사 개최	한국 서울
	23(일)~29(토)	차세대경영자교류단 파견(15명)	일본 도쿄
	24(월)~11/11(토)	지식산업기술연수 파견(30명, 111일간)	일본
9	4(금)~8(화)	제7회 한일고교생교류 캠프 유치	한국 서울
	5(화)~8(금)	2006 NEAR IN 도야마 전시회 파견(10사)	일본 도야마
10	25(월)~29(금)	전자기술상담회 파견	일본 도쿄, 후쿠오카
	19(화)~22(금)	제6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중국 日照市
11	18(수)~21(토)	제7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	일본 후쿠이현
	18(수)~21(토)	제75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 파견	일본 도쿄
	18(수)~20(금)	제5차 한중일 비즈니스포럼 개최	중국 장춘시
	24(화)~28(토)	아시아산업기술페어 전시회 파견(19사)	일본 키타큐슈
	31(화)	제7회 한일부품소재상호보완상담회 유치(23사)	한국 서울
12	1(수)	한일산업협력특별 세미나 개최	한국 서울
	4(토)	주한일본대사 초청 골프행사 개최	한국 서울
	6(월)~7(화)	제8회 한일산업무역회의 개최	한국 서울
	10(금)	지식산업기술연수 수료식 & 보고회 개최	일본
	17(금)	생산성향상단기컨설팅 성과발표회 개최	한국 서울
	27(월)~12/1(금)	제20회 한일산업기술교류미션 파견(30사)	일본 도쿄
	6(수)~9(토)	제76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 파견	일본 치바
	10(일)~23(토)	이공계산업기술캠프 파견(12명)	일본 나고야 등
	5(화)	주한일본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 서울
	12(화)	한일산업무역회의 T/F 1차 업무협의	한국 서울
	13(수)	한일·일한경제협회 정례업무협의 개최	한국 서울